갈라디아서 6:17에서 바울이 사용한 흔적 (TA ΣΤΙΓΜΑΤΑ)에 대한 배경 연구

The Background Study of Paul's Use of TA ΣΤΙΓΜΑΤΑ in Galatians 6:17

주 기 철

고신대 신학과 조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114

2. ΣΤΙΓΜΑ의 용어 및 역사적 연구 | 116

2.1 ΣΤΙΓΜΑ가 가축에 사용된 경우 | 116

2.2 ΣΤΙΓΜΑ가 인간의 몸에 사용된 경우 | 117

3. 예수의 고난과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 128

4. 나가면서 | 144

요약

갈라디아서 6:17에서 바울이 사용한 흔적(TA ΣTIΓMATA)에 대한 배경 연구

갈라디아서 6:17에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바울이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또 이 표현은 신약성경 중 갈라디아서 6:17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a *hapax legomenon*) 그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의를 별도로 하고, στίγμα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이 지니고 다녔던 흔적이나 문신으로 이해된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노예)'로 여겼기 때문에(롬 1:1; 갈 1:10; 비교. 딛 1:1) στίγμα는 종종 예수님을 섬기는 동안 바울에게 주어진 모종의 흔적을 지칭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στίγμα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고대세계에서 στίγμα가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쓰였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시대마다 다르고,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에서는 그러한 의미들 중에 어떤 의미로 στίγμα를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갈라디아서 6:17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게 할 이유로 여긴다면, στίγμα의 용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17 전체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갈라디아서 6:17에서 바울이 사용한 στίγμα라는 용어의 배경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내에서의 τὰ στίγματ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세계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바울 또한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이 왜 στίγμα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배경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자는 στίγμα 용어 자체와 역사적 용례를 먼저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의 의미와 이 표현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를 위한 바울의 고난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넓은 바울서신의 상황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바울이 사용한 στίγμα와 가장 비슷한 용례는 문제를 일으킨

노예에게 벌로 주어졌던 στίγμα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이해한 사실이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라는 표현에 잘 나타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보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Study of Paul's Use of TA ΣΤΙΓΜΑΤΑ in Galatians 6:17

주요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갈 6:17, 스티그마의 역사적 배경, 스티그마의 용례

Abstract

The Background Study of Paul' s Use of ΤΑ ΣΤΙΓΜΑΤΑ in Galatians 6:17

Prof. Dr. KiCheol Joo

The expression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the marks of Jesus') comes in Gal 6:17. There has been scholarly debate on the meaning of this expression since Paul does not explain its meaning clearly and τὰ στίγματα is used only in Galatians 6:17 in the NT(a hapax legomenon). Apart from this debate, the term στίγμα is commonly understood as a mark or tattoo slaves were carrying in their bodies in the ancient world. Since Paul considers himself as 'a slave (servant) of Jesus' (Rom 1:1; Gal 1:10; cf. Tit 1:1) people commonly understand the term στίγμα as referring to a certain mark which was given to Paul during his service for Jesus. There is no problem with such an understanding. Nevertheless, it seem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erm στίγμα since although the term στίγμα was commonly used in the ancient world in various contexts, the specific sense was different from one era to another so it is unclear what Paul means by the term στίγμα in Gal 6:17. In addition, since Paul regards the marks of Jesus in his body as the reason why the Galatians should stop troubling him,

clarifying the usage of στίγμα in Gal 6:17 would sharpen the meaning of the whole verse.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Paul's use of the term στίγμα in Gal 6:17.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τὰ στίγματα in the Galatian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sage of στίγμα in the ancient world since it was commonly used in the period and Paul was probably aware of it.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the probable background that made Paul adopt the term στίγμα. In order to show this I will deal with the terminological analysis and historical usage of στίγμα in the first section. In the second section, the meaning of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and its use in relation to Jesus' suffering and Paul's suffering for Christ and the reason why Paul suffers for Christ will be explored in the wider Pauline context.

This study will lead to the conclusion that Paul's use of the term στίγμα is most likely similar to that given to troublesome slaves as a penalty. We can also perceive that Paul understands Jesus as taking the form of a slave and suffered and dying on the cross, which is well expressed in the phrase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The reason why Paul says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ἐν τῷ σώματί μου βαστάζω is because he wants to show that he has Jesus' mind and follows him, imitating him.

Keywords | the Marks of Jesus, stigma, Gal 6:17,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erm stigma, the usage of the term stigma.

1.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 6:17에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타 스티그마타 투 이에수,''예수의 흔적')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다.[1]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고 또 τὰ στίγματα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17절에서 유일하게(a *hapax legomenon*)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στίγμα('흔적')라는 표현은 흔히 옛 노예들이 몸에 지녔던 표식이나 문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바울도 자신을 '예수의 종(노예)'(롬 1:1; 갈 1:10; 비교. 딛 1:1)으로 표현하기에 이 στίγμα라는 표현을 단순히 예수의 종 된 바울이 예수를 위해 가졌던 모종의 표식으로 이해될 때가 많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사용한 그 단어(στίγμα)의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겠지만, στίγμα라는 단어가 고대에 쓰였다고 할지라도 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각 나라와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에서 사용한 στίγμα가 가지는

1) J. B. Lightfoot, *Sain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10th ed.; London: Macmillan and co, 1890, repr. 1914), 220; H. D. Betz, *Galat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312-13;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Paternoster, 1982), 268; C. B. Cousar, *Galati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48; G. W. Hansen, *Abraham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Contexts* (Sheffield: JSOT Press, 1989), 65-70; J. D. G. Dunn, *New Testament Theology: The Theology of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8-29; J. A. D. Weima, 'Gal 6:11-18: A Hermeneutical Key to the Galatian Letter,' *CTJ* 28 (1993), 90-93. 비교. E. D. W. Burt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Edinburgh: T & T Clark, 1952), 359; J. S.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in the Theology of Paul* (Sheffield: JSOT Press, 1985), 94; R.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8), 312.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된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Στίγμα의 배경 연구를 통해 바울이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갈라디아서 6:17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큰 유익을 준다고 본다. 바울은 여기서"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다.[2] 바울이 τὰ στίγματα를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이유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절에서 그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τὰ στίγματ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할 것이다.[3]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갈라디아의 배경에서 사용된 τὰ στίγματ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στίγμα라는 단어와 그것이 고대 세계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례 중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노예에게 주어졌던 표(στίγματα)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에서 사용한 경우와 가장 비슷하다는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바울이 사용한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의 의미를 갈라디아서와

---

2) 번역은 필자의 것. Τοῦ λοιποῦ라는 표현은 '지금으로부터'('from now on'; KJV; NRSV, ESV; NASB; NLT), '그러므로'('henceforth'; ASV; RSV), '끝으로'('finally'; NIV)로 번역된다.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이 후로는'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결론적으로'로 번역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Morris, *Galatians*, 190은 τοῦ λοιποῦ가"바울이 그의 논의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어쩌면 이 표현을 '결론적으로'('in conclusion')로 번역할 수 있다"고 옳게 지적한다. Burton, *Galatians*, 360; Betz, *Galatians*, 323; R. N. Longenecker, *Galatians* (Waco: Word Books, 1990), 299; T. R. Schreiner, *Galatian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383도 보라.

3) 지면 관계상 갈라디아서 6:17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본 글에서 다루지 않고 따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그러나 간략하게 언급하면, 갈라디아서의 맺음말이 서신 전체를 요약한다는 것에는 학자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갈라디아서 6:17이 맺음말의 결론이 된다면, 이는 서신 전체의 결론이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보다 넓은 바울 서신의 맥락에서 살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본받아 따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ΣΤΙΓΜΑ의 용어 및 역사적 연구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στίγμα는 στίζω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찌르다[구멍이 나도록]'(to prick) 또는 '표하다[자국을 남기다]'(to mark)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στίζω)가 인간이나 짐승의 육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낙인을 찍다'(to brand)나 '문신을 세기다'(to tattoo)는 의미를 가진다.[4] 따라서 στίγμα는 낙인을 찍은 결과로 생긴 육체의 흔적을 가리킨다.[5]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적용한 것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2.1. ΣΤΙΓΜΑ가 가축에 사용된 경우

고대 세계에서 가축을 어떤 모양의 표(signs)나 머리글자(initials)를 사용하여 낙인을 찍는 것은 꽤 일반적인 것으로, 그 가축의 소유주를 표하는 한

4) R. P. Martin,'στίγμα,'*NIDNTT*, 2:572-73.

5) N. Walter,'στίγμα,'*EDNT*, 3:276; P. Siwek, 'Stigmatizaion,' *NCE*, 13:711-13; J. Bligh, *Galatians: A Discussion of St Paul's Epistle* (London: At Paul Publications, 1969), 496; J. L.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rep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568, n. 71.

방편이었다.[6] 이러한 낙인은 보편적으로 짐승의 오른쪽 넓적다리에 주어졌는데, 이러한 표는 어떤 주인의 소유를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에 짐승의 몸에 이러한 표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즉,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스(C. P. Jones)는 "사실 짐승을 낙인찍는 것이 στίγμα로 칭해진 경우가 결코 없고 단지 화상(burn)이나 자국(stamp)을 나타내는 단어로 칭해졌다(χαρακτήρ)"고 말한다.[7]

2.2. ΣΤΙΓΜΑ가 인간의 몸에 사용된 경우

낙인을 찍는 것은 고대 오리엔트(바벨론과 이집트) 사회에서는 인간의 몸에도 행해졌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낙인/문신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 될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στίγματα가 어떤 집단(clan)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나타내는 표로 사용되었다.[8] 둘째, στίγματα는 장식(decoration)을 지칭할 때도 쓰였다. 존즈 외 여러 학자들은 고대 세계의 트라키아인들(The Thracians) 외에 어떤 부족들이 장식을 위해서 문신을 했다고 제안한다.[9]

---

6) Walter,'στίγμα,' 3:276.

7) C. P. Jones, 'Stigma: Tattooing and Branding in Graeco-Roman Antiquity,' JRS 77 (1987), 140. 비교. O. Betz, 'στίγμα,' *TDNT*, 7:658.

8) Betz,'στίγμα,'7:659-60. 예를 들면 이집트인들(the Egyptians), 폰투스인들(those of Pontus), 다키아인들(the Dacians), 사르마티아인들(the Sarmatians), 트라키아인들(the Thracians),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어떤 종족들(some tribes in Ethiopia)이 그들이다.

9) Jones, 'Stigma,' 145-46. J. W. Barrier, 'Marks of Oppression: A Postcolonial Reading of Paul's Stigmata in Galatians 6:17,'BI 16 (2008), 354; J. Huehnergard and H. Liebowitz, 'The Biblical Prohibition Against Tattooing,' VT 63 (2013), 73도 보라.

셋째, 오리엔트 종교에서 어떤 독실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표를 하기도 했다.[10] 따라서 이러한 표가 "고백의 표이면서 부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11] 이러한 성스러운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신에게 헌신된 자들이고 그 신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의 보호 아래 있었고 따라서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12] 이러한 묘사는 갈라디아서 6:17절의 τὰ στίγματα를 보호 표시(protective mark)로 보는 어떤 학자들과의 견해와 일치한다. 사실 이러한 사용과 바울이 그것을 사용한 상황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또 그의 종이 되었다. 그는 또한 예수의 흔적이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의 τὰ στίγματα를 종교적인 보호표시의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고대 오리엔트 종교에서 헌신된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표를 하였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 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히브리 인들은 자신의 살을 베거나(민 14:1-2)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레 19:28).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τὰ στίγματα가 앞서 말한 또 다른 두 경우(회원 자격이나 장식의 표)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한다.

고대 오리엔트의 낙인의 부정적인 의미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노예들의 몸에 새겨질 때였다.[13] 이는 그들의 신분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

10) W. L. Westermann, *The Slave System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5), 45; Siwek, 'Stigmatizaion,' 13:711; Huehnergard and Liebowitz, 'The Biblical Prohibition,' 73."어떤 이의 종이 그 곳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을 신에게 드림으로 어떤 신성한 표식을 새김 받으면 그는 손댈 수 없다"고 한다(Hdt. Hist. 2, 113을 보라). Philo, *Spec. Laws* 1:58도 보라.

11) Walter,'στίγμα,'3:276.

12) Betz,'στίγμα,' 7:660. J. H. Moulton,'The Marks of Jesus,' *ExpTim* 21 (1910), 284; Jones, 'Stigma,' 144;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4. 3 Macc 2:29도 보라.

13) I. Mendelsohn,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말해준다.[14] 당시에는 노예들과 같이 취급 받던 자들도 있었다. 한 남자의 첩이 그 정부인에 대항해서 반역할 때 그 여인은 노예처럼 여겨졌고 따라서 낙인이 찍혔다. 마찬가지로 한 아들이 그의 홀어머니나 아버지를 마구 대할 때 그 또한 노예로 여겨지고 또 노예처럼 낙인이 찍히면서 그처럼 취급되었다.[15] 그러나 고대 오리엔트에서 στίγμα로 노예를 식별하던 관행들은 초기 그레코로만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존은 "동물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극히 보편적인 관습이었지만 인간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인 사이에서도 비교적 드문 것이었다"고 말한다.[16] 월터(Walter)는 "후기 신약시대에는 στίγματα와 같은 것들이 노예

---

repr.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8), 49은 많은 문서에서 노예의 표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고대뿐 아니라 신 바벨론시대의 노예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그것[노예의 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근거하여 멘델슨은 계속해서 "이[사실]는 법에 따르면 노예의 표가 모든 노예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도주하려는 성향을 보였던 노예들에게 찍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멘델슨은 "노예들을 표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 모든 노예가 표를 받았다는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법전(*Hammurabi's Code of Laws*) §226에 따르면 노예들은 '노예의 표'를 받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Walter, 'στίγμα,' 3:276은 "낙인으로 노예들의 신분을 표하는 것은 오리엔트에서만 정착된 관습이었다"고 말한다.

14) Betz, 'στίγμα,' 7:659.

15) Betz, 'στίγμα,' 7:659; Mendelsohn,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43-45; C. H. W. Johns, 'Babylonian Law-The Code of Hammurabi,' *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 1910-1911) [online] (http://faeriekeeper.net/PDF/government16a.pdf [Accessed March 13, 2014]에서 이용 가능함); L. W. King, *Hammurabi's Code of Laws*, 1997 [online], §127, §146, §226, §227, §265 (http://eawc.evansville.edu/anthology/hammurabi.htm [Accessed March 13, 2014]에서 이용 가능함)를 보라. 고대 이집트에서의 στίγμα의 사용에 대해서는 A. Stewart and G. Long, *Plutarch's Lives* vol. 2 (4 vols.; London: George Bell and Sons, 1899), 452-53을 보라.

16) Jones, 'Stigma,' 141. D. B. Martin, *Slavery as Salvation: The Metaphor of Slavery in Pauline Christianity*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0), 1-49는 "노예[slave]라는 용어가 현대 독자들에게는 종종 빈곤 한 농업 및 가사 노동자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이 용어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들이나 로마 군대에서 신병들을 식별하는 '보편적' 수단으로 문서화 되어있다"고 말한다.[17]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분명 신약시대의 로마 세계에 살았던 자들은 앞서 말했던 오리엔트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인들은 στίγματα를 한 노예의 신분이나 그의 주인을 식별하는 표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갈라디아인들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던 고대 오리엔트의 관습을 몰랐다고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관습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았다는 말이 항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레코로만 세계에서는 στίγματα가 고대 오리엔탈 시대와 같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은듯하다. 존스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종교적 문신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들 중에 그것을 실제로 행한 자들은 거의 없다. 장식으로서의 문신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18] 해리스(Harris)와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시기에 노예들이 비록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인종이나 말이나 옷으로 자유민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19] Στίγματα는

말한다(1). 그레코로만 세계의 노예들은 모든 종류의 일자리(관리 노예, 잘 교육받은 노예나 기술을 연마한 숙련된 노예들은 중간 수준의 노예로 여겨졌다)를 소유 할 수 있었고 또 그 소유주가 가진 부나 사회적 지위나 지방 권력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존스는"제화공의 노예는 거의 지위를 갖지 않았지만 지방의 유력인사나 존경 받는 귀족의 노예는 각각 상당한 권력과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다. 카이사르의 노예는 더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어쩌면 권력을 가지고 지방의 주요 자유민들과 경쟁하는 비공식적인 지위를 누렸다"고 말한다(49). Barrier,'Marks of Oppression,'354-55도 보라.

17) Walter, 'στίγμα,' 3:276; Betz, 'στίγμα,' 7:659. 이와 비슷하게, 베츠는 이 오리엔트의 관행이 "후기 로마제국시대"에 받아들여졌다고 말한다. Jones, 'Stigma,' 155도 보라.

18) Jones, 'Stigma,' 145.

19) M. J. Harris, *Slave of Christ: A New Testament Metaphor for Total Devotion to Christ*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9), 33-45는 "노예들이 때로 그들의 소유주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책임 있는 전문 직책을 수행했다; ..... 그들은 공공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았고 (적어도 도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차별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를 사기 위해 저축 할 수 있었다; 그들의 타고난 열등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

도망가려고 했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법을 어긴 자들에게 낙인으로 찍혔다. 전쟁에서 탈영한 군인들도 낙인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죄인들은 벌로서 그들의 몸에 낙인이 찍혔다.[20] 주목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형벌로서 στίγματα가 몸에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작인이 찍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거나 매를 맞았다.[21] 즉, στίγματα는 늘 고난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στίγματα는 노예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도 이마에 낙인이 찍히고 "건물이나 길을 만드는 건설현장의 강제노역"을 선고 받기도 했다.[22] 따라서,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στίγματα가 골칫거리 노예들(troublesome slaves, 또는 시민권자들)에게 사용될 경우 그것이 한 노예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불명예와 치욕의 상징이었고, 이러한 표를 지닌 자들은 누구나 그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했을 것이다.[23] 그러한 표를 지니고 있는 자들은 사람들, 심지어 동료 노예들에 의해서도 멸시를 받았을 것이다. 바울이 στίγματα라는 단어를

지 않았다"고 말한다(44). Martin, *Slavery as Salvation*, 1-49도 보라.

20) Jones, 'Stigma,' 147-50는 문제를 일으킨 노예들이나 죄인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에 대한 형벌로서의 문신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다고 말한다. Siwek, 'Stigmatizaion,' 13:771; Walter, 'στίγμα,'3:276; Martin, 'στίγμα,'2:572도 보라. S. Joshel, S*lavery in the Roman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19는 "문제를 일으킨 노예들의 신원과 그들에게 새겨진 '죄들'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에 낙인이나 아니면 문신이 새겨졌다"고 말한다. K. M. McGeough, *The Romans: New Perspectives* (Santa Barbara: ABC-CLIO Inc., 2004), 142-43도 보라.

21) Jones, 'Stigma,' 147-48을 보라.

22) Betz,'στίγμα,'7:658. "[존경할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벌들이 모두 심각한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갈리굴라]가 행한 쇼들 중에 하나를 비판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결코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Suet. *Cal.,* 27, 3 [C. Suetonius Tranquillus, *The Lives of the Twelve Caesars* (trans. J. C. Rolfe; London: Heinemann, 1913)를 보라] [online] (http://penelope. uchicago.edu/Thayer/E/Roman/Texts/Suetonius/12Caesars/Caligula*.html) [2014.5.20. 접속]에서 이용 가능함).

23) Betz,'στίγμα,' 7:658; Walter,'στίγμα,' 3:276. Jones, 'Stigma,' 142-43은 "왜냐하면 문신은 일반적으로 굴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의 제거에 대해 기록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한다(143).

이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다면,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표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것이다.

만약에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의 의미가-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처형의 수단으로 고안되어 고대 시대에 폭넓게 사용되었던 십자가형으로 인해 예수의 몸에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면, 바울이 사용한 στίγματα는 골칫거리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낙인과 비슷한 듯하다. 그레코로만 시대에 στίγματα는 기본적으로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들과 같은 보다 열등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해졌다.[24]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사람에 의해 고안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잔인한 방법이었다. 또한 이것은 인간 속에 잠재된 잔인함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현이기도 했다.[25]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경험은 없었다. 심지어 '십자가'라는 표현조차도 입에 담기 꺼려하는 외설이었다. 사람들은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했다.[26]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24) Schneider, 'σταυρός,' 7:572; M. Hengel, *Crucifixion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Folly of the Message of th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39-45, 86-90은 십자가형벌이 "심각한 범죄와 반역죄의 경우"가 아니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거의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한다(39).

25) Hengel, *Crucifixion,* 87은 십자가형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이른바 억지력으로서의 최고의 효율성에 있다. 물론 그것[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대한 원시적 욕망과 개별 통치자들뿐 아니라 대중들의 가학적 잔혹성을 만족시켰다. 십자가형은 보통 적어도 채찍질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고문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비교. J. Murphy-O'Connor, '"Even Death on a Cross": Crucifixion in the Pauline Letters' in T*he Cross in Christian Tradition: From Paul to Bonaventure* (ed. E. A. Dreyer; New York: Paulist Press, 2000), 21-22.

26) D. K. William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e Terminology of the Cross and Conflict in Philippi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247; Burton, Galatians, 145-46; Bruce, *Philippians,* 71; J. H. Michael, *The Epistle of Paul to the Philippians* (5th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48), 93; G. F. Hawthorne, *Philippians* (rev. ed.; Waco: Word Books, 2004), 122-23; P. T.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91), 230; R. P. Martin, *The Epistle of Paul to the Philippians* (London: The Tyndale Press, 1959), 103. 바울이 고린도전서 1:23(고전 1:18도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극도로 힘든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가장 낮은 자로 여겨져야 할 사람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과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쁘게 행동한 노예들에게 주어진 낙인을 예수의 십자가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 낙인이 노예들에게 굴욕과 모욕과 극도의 힘듦의 자국을 남긴 것과 같이 십자가도 예수에게 그러한 자국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처형은 그에게 징벌적인 낙인을 찍는 것으로, 또한 예수가 굴욕적인 방법으로 취급 받는 것은 누군가가 몹시 불순종하는 노예를 다루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Στίγμα라는 용어는 칠십인역(LXX)에서는 솔로몬의 아가 1:11에서 단 한번만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한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27] 그 어떤 단어도 στίγμα에 직접적으로 상당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용어와 관련된 개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타난다.[28] 이사야서 44:5에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another will write on his hand, 'The LORD's, ESV)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표(וָת)를 하도록 명령받았다(겔 9:4).[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하는 것은 이스라

보라)에서 십자가(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는 걸림돌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어리석음으로 묘사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7) 여기서 στίγμα라는 용어는 "장신구 한 점 위에 있는 작은 공이나 점"으로 이해된다 (Betz, 'στίγμα,' 7:660; Martin, 'στίγμα,' 2:572를 보라).

28) Betz, 'στίγμα,' 7:660.

29) Martin, 'στίγμα,' 2:572; Betz,'στίγμα,'7:660-61.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Eerdmans, 1997), 307은 "고대 초서체에서 그것[וּתָ]은 X 모양이나 십자가 모양을 가지는데… 이는 의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쓰이는 구별 마크역할을 했다. 유월적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렸던 피와(출 12) 라합의 집 창문에 있었던 붉은색 줄(수 2:18-21; 6:22-25)과 같이 그것[וּתָ]은 하나의 희망의 표(sign)였다(비교. LXX τό σημεῖον)"고 말한다. J. L. Teicher,'The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Sign X in the Isaiah Scroll,'VT 5 (1955), 193-98도 보라. 비교. I. Sonne,

엘 내에서는 금지되었다(레 19:28; 21:5).[30] "단지 이스라엘이 배교한 시대에 이방인 국가들로부터 이 관행(종교적 문신)을 빌렸다(렘 16:6; 41:5; 비교. 47:5; 48:37)."[31] 따라서 베츠(Betz)는 "바벨론 유수 이후의 시대에는 제사장의 경우에 그것[종교적 문신]이 강제적으로 금지되었고(레 21:5 참조) 또 일반적으로도 금지되었다(레 19:28; 신 14:1)"라고 지적한다.[32]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볼 때, 낙인을 찍는 것이나 문신을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폭넓게 행해지지는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문신이나 낙인찍는 것을 행했고, 또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은 στίγμα가 무엇인지는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33]

헬라 시대의 유대인들은 낙인찍는 것이나 문신하는 것과 친숙했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이 유대인 죄수들이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다.[34] "등록된 자들은 또한 그들의 몸에 불로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담쟁이덩굴 잎 모양의 낙인이 찍혀야 한다"고 기록되었다(마카비 3서 2:29; 비교 마카비 2서 6:7). 마틴(Martin)은 "유대인들에 대한 헬라시대의 박해는 이방의 상징들을 강제로 부과하는 형태를 띄었다"고 말한다. 계속 이어서 마틴은, 이러한 이유로 문신은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배교의 특징"으로

'The X-Sign in the Isaiah Scroll,' VT 4 (1954), 91-92.

30) C. Roth, 'Tattoo,' *EncJud,* 15:832; Huehnergard and Liebowitz, 'The Biblical Prohibition,' 74-76; *m. Mak.* 21a ("R. Simeon B. Judah는 R. Simeon [B. Yohai]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자신은 거기 그 이름[한 우상의 이름]을 기록하지 전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을 보라. 비교. *m. Mak.* 3:6. *Tg. Onq.* Lev 19:28; *Tg. Neof.* Lev 19:28도 보라.

31) Martin, 'στίγμα,' 2:572.

32) Betz, 'στίγμα,' 7:661.

33) Huehnergard and Liebowitz, 'The Biblical Prohibition,' 71.

34) Betz, 'στίγμα,' 7:661; Martin,'στίγμα,' 2:573.

여겨졌다고 말한다.[35] 반면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의 표로 생각했다. 월터는 "헬라 시대의 유대교는 할례를 종교적 문신을 배제한 고백적인 표로 보았다"고 주장한다.[36] 확실히 출애굽기 라바(Exodus Rabbah) 19:6에서 할례와 이교도들의 낙인(stigma)이 비교되고 있다. 그럼에도 후기 유대주의에는 에스겔 9:4의 보호표(protective mark) 개념이 어떤 문서에 기록되었다(다마스커스 규율서[CD] 9:10-12; 19:11-14; 솔로몬의 시편[Ps.Sol] 15:6-9).[37] 비록 학자들 간에 유대인들이 몸에 낙인 찍는 것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지만, 그들의 납골당이나(ossuary) 무덤에 십자가 표를 새겨 넣었을 개연성은 커 보인다.[38]

중세시대에는 낙인찍는 것이나 문신하는 것, 특히 '형벌로서의 낙인찍기'(penal branding)가 빈번하게 실행되었다.[39] 그러나 기독교 세계에서는 στίγματα를 신비적으로 유발된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Στίγματα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손과 발, 때로는 옆구리나 어깨, 그리고 등에 지니고 있던 상처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의 참여를 나타내는 눈에

---

35) Martin, 'στίγμα,' 2:573.

36) Walter, 'στίγμα,' 3:277.

37) Betz, 'στίγμα,' 7:662.

38) 낙인찍는 것의 실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R. H. Smith, 'The Cross Marks on Jewish Ossuaries,' *PEQ* 106 (1974), 53-66을 보라. 비록 스미스가 "납골당에 조잡한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비종교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팔레스타인의 납골당들(ossuaries)에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이 실행되었다는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66).

39) Jones, 'Stigma,' 155는 중세시대에 형벌로서 낙인을 찍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문신[아마도 손목에]은 단지 유랑자들(travellers)에게만 실재로 행해지던 전통으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B. P. Pratten (trans.), *The Acts of Sharbil* (eds. A. Roberts, J. Donaldson and A. C. Coxe; Buffalo: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86)도 보라. AD 330년경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1세는 손이나 장딴지에는 허락하면서도 얼굴에 문신하는 것을 금했다(Jones, 'Stigma,' 148는 Cod. Theod. 9.40.2의 일부를 인용한다['quo facies, quae ad similitudinem pulchritudinis caelestis est figurata, minime maculetur,' 즉 "따라서 신적 아름다움(divine beauty)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얼굴은 가능한 한 더럽혀서는 안 된다"]). J. A. Fisher, 'Tattooing the Body, Marking Culture,' *BS* 8 (2002), 93도 보라.

보이는 표로 여겨졌다."[40] 모들(L. Mödl)은 갈라디아서 6:17이 중세시대에 στίγματα를 이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출발점"(a point of departure)이라고 말한다.[41] 베츠는 중세시대에 "깊은 경건과 위대한 영적 능력으로 저명한 자들이나 또는 병이나 금욕으로 약해져서 그들의 육체가 아주 민감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눈에 보이게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42]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가 처음으로 그 흔적을 가진 자로 여겨졌고, 그 이후로 그 흔적을 지닌 많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어왔다.[43]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은 비록 낙인찍는 것과 문신하는 것의 목적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대 시대에 항상 실행되어졌음을 시사한다. 어떤 때에는 στίγμα는 어떤 노예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힌다. 또 다른 때에는 그것이 한 종족의 회원임을 나타내거나, 종교적 헌신자들에게 신성한 표로 주어지기도 했는데 이 경우 그 표는 보호표(protective mark)로 여겨졌다. 어떤 시기에는 στίγμα가 죄인들이나 잘못을 저지를 노예들이나 군 탈영병들에게 수치를 주는 형벌의 표이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낙인찍는

---

40) V. Turner, 'Bodily Marks,' *EncRel,* 2:274.

41) L. Mödl, 'Stigma,' *RPP,* 12:284은"이것[갈 6:17]을 시작으로 중세의 수난 체험적 신비주의(passion mysticism)가 손이나 발 그리고 심장 주변의 상처를 위해 흔적(stigmata; 가톨릭에서는 '성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상처들은 고의로 얻은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진정한 성흔)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려는 개인들의 과도한 자기 암시로 인한 느낌(가짜 성흔)이었다"고 말한다.

42) Betz, 'στίγμα,' 7:664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못 자국이나 옆구리의 상처, 그리고 드물게는 가시 면류관에 의한 흔적들, 매 맞은 상처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43) B. B. Warfield, Miracles: Yesterday and Today, True and False (Grand Rapids: Eerdmans, 1965), 84-94; J. Nickell, *Looking for a Miracle: Weeping Icons, Relics, Stigmata, Visions & Healing Cure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3), 219-25; C. Warr, 'Visualizing Stigmata: Stigmatic Saints and Crises of Representation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Italy' in *Saints and Sanctity,* SCH 47 (eds. P. Clarke and T. Claydon; Suffolk: Boydell Press, 2011), 227-48; Mödl, 'Stigma,' 12:284-85; Betz, 'στίγμα,'7:664; Turner, 'Bodily Marks,' 2:274-75; H. Cowan, 'Stigmata,' *EncRelEth,* 11:857-60.

것이 금지되었지만, 바벨론 유수 이후의 시기에 이교도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몸에 낙인찍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바울 시대의 유대인 신자들은 στίγμα와 익숙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덤에 십자가 표를 했고 또 할례가 이방인들의 στίγματα와 대조되는 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στίγμα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한 자들에게 신비적으로 주어졌던 눈에 보이는 표(sign)로서의 상처나(wounds) 상흔(scars)으로 여겨졌다.

바울은 τὰ στίγματα라는 표현을 그의 모든 서신들 중에서 오직 갈라디아서 6:17절에서 한 번만 사용하고 있고 그 자신이 그것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τὰ στίγματα를 갈라디아서 6:17절에서 썼는지 당장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이 있는 것은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잘 교육받은 자로서(행 22:3) στίγμα라는 용어가 당대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다양한 용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매우 자주 노예 이미지(slavery imagery)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바울이 사용한 τὰ στίγματα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 받은 것에 의한 육체적 상흔을 가리킨다면,[44] 갈라디아서 6:17절에서 사용된 이 용어는 어쩌면 고대에 여러 경우에 사용되었던 στίγματα의 용례 중에 특히 문제를 일으킨 노예에게 στίγματα가 처벌로 주어진 경우에 가장 잘 적용될 듯하다.[45] 왜냐하면 비행 노예들(delinquent slaves)이 지녔던 τὰ στίγματα와 예수의 그것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채찍질 당하거나 매를 맞은 것과 같이 예수도 채찍질 당하고 매로 맞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문제가 많은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자가 στίγματα를 그들의 몸에 지니게

44) 갈라디아서 6:17절의 τὰ στίγματα의 의미는 이후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45) Jones, 'Stigma,' 147는 고대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노예들은 종종 달아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된 것처럼 예수도 그의 몸에 στίγματα를 지니게 되었다(비교. 요 20:24-27).[46] 어쩌면 이런 유사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17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데 배경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있을 것이다.

3. 예수의 고난과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앞선 배경 연구를 통해서 바울이 사용한 τὰ στίγματα가 문제를 일으켰던 노예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갈 6:17)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를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보다 넓은 바울 서신의 맥락에서 살필 필요가 있겠다.

바울이 사용한 '예수의 흔적'(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받은 핍박 때문에 바울의 몸에 생긴 육체적 상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하고자 한다. '예수의 흔적'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중세 시대에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몸에 지녔던 성흔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역사상 가장 먼저 성흔을 가진 자로 기록되었다고 한다.[47] 성 프란시스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

---

46) 유대인들은 분명 바울이 채찍질 당하거나 맞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았다(J. Byron, 'Paul and the Background of Slavery: The Status Quaestionis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CBR 3* [2004], 121-23을 보라).

47) Nickell, *Looking for a Miracle,* 219.

그리고 그 환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를 그의 몸에 남겨두고"사라졌다.[48]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람들은 그 흔적(stigmatization)을 성자에게 주어지는 기적적인 표로 여긴다.[49] 이러한 견해는 바울이 지녔던 흔적이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결과로 생겼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블라이(Bligh)는"만약 그런 의미라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평온함에 대한 호소이고 따라서 그 자신은 더 묵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될 수 없다고 옳게 주장한다.[50] 니켈(J. Nickell)이 묘사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흔을 위조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매우 예외적인 성인이라는 거짓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상처를 내기도 했다.[51] 심지어 람세이(Ramsay)는 그러한 흔적이 십자가형으로 인해 예수의 몸에 생긴 그 흔적들과 비슷하다는 견해는 "학자들의 '암흑시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2]

데이스만(G. A. Deissmann)은 τὰ στίγματα가 예수의 보호표(protective mark)이거나 아니면 주술적 부적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53] 그는 구약

---

48) P. Woodroffe, *The Little Flowers of Saint Francis of Assisi* (San Francesco: Read Books, 2008), 202.

49) Warfield, *Miracles*, 84-94.

50) Bligh, *Galatians*, 496.

51) Nickell, *Looking for a Miracle*, 221; M. Freze, *They Bore the Wounds of Christ: The Mystery of the Sacred Stigmata* (Indiana: Our Sunday Visitor Publishing, 1989), 216. M. Luther, *A commentary on Sain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New York: Robert Carter, 1844), 566는 프란시스의 몸에 있는 성흔을 그의 강한 자만하게 되는 것으로 여긴다.

52) W. M. Ramsay, *A Historical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9), 472.

53) G. A. Deissmann, *Bible Studies: Contributions Chiefly from Papyri and Inscriptions to the History of the Language, the Literature and the Religion of Hellenistic Judaism and Primitive Christianity* (2nd ed.; Edinburgh: T & T Clark, 1909), 349-60.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4도 보라. 데이스만은"어떤 신과 관련 있는 특별한 부적을 지니는 것(βαστάζειν)은 대적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괴로움(κόπους παρέχειν)으로부터 보호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주장을 하는데, 구약에 보호표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54] 데이스만은 몇몇 후기 문서(솔로몬의 시편 [Ps.Sol.] 15:8; 마카비 3서 2:39, 필로[Philo])와, 계시록(14:1; 7:2; 9:4)과 파피루스의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상흔들을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 보호표라고 묘사한다고 말한다. 데이스만은 바울이 오시리스(Osiris)의 시체가 부적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τὰ στίγματα를 보호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55] 그러나 바울은 주술을 육체의 일들 중 하나로 여기고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갈 5:19-21). 따라서 바울이 τὰ στίγματα를 부적과 같은 보호표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드네이(W. F. Adeney)는 바울이 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경험을 주술적 행위들과 비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옳게 지적한다.[56] 포베(J. S. Pobee)도 데이스만이 "파피루스에서 그 부적들이 στίγματα라고 불렸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데이스만의 견해를 반박한다.[57] 따라서 데이스만의 견해는 개연성이 낮다.

딩클러(E. Dinkler)는 τὰ στίγματα를 헬라어의 Χριστός를 의미하는 X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바울이 세례 받았을 때에 그의 몸에 새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58] 이 견해는 아마도 에스겔 9:4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왜냐하면 이

마법(charm)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358).

54) Deissman, *Bible Studies,* 350-52은 보호표들(protective marks)을 보여주는 증거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 44:51, 겔 9:2, 레 19:27f, 21:5f, 신 14:1. 계속해서 데이스만은 이러한 견해는 가인의 보호표에 대해서 논의했던 스타데(B. Stade)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말한다(B. Stade,'Beiträge zur Pentateuchkritik,'ZAW 14 [1894], 250-318을 보라).

55) Deissman, *Bible Studies,* 350-58, 특히 352.

56) W. F. Adeney, (ed.) *Thessalonians and Galatians: Introduction, Authorized Version, Revised Version with Notes, Index and Map* (Edinburgh: T.C. & E.C. Jack, 1902), 339.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4도 보라.

57)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4.

58) E. Dinkler, 'Jesu Wort vom Kreuztrage' in *Neutestamentliche Studien für R. Bultmann*

구절에 주(the Lord)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τὸ σημεῖον]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이다.[59]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납골당이나 무덤에 한 십자가 표와 관련하여 베츠(O. Betz)는 이 관습은 "아마도 에스겔 9:4절의 영향을 받았고 야훼께 신실했던 자들을 위해 주어진 종말론적인 보호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한다.[60] 하지만 종교적인 문신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레 19:28) 바래시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금지된 것이었다.[61] 초대교회가 세례시에 어떤 표를 새겨주는 관습을 행했다는 증거도 없고, 바울이 그의 세례시에 헬라어 알파벳인 X가 주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포베(Pobee)는 "딩클러의 이론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하게 하는 바, 그 어디에도 바울이 자신의 세례를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구분하는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본 적이 없다"라고 옳게 강조한다.[62] 따라서 딩클러의 견해 역시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히르쉬(E. Hirsch)는 τὰ στίγματα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대면한 것 때문에 생긴 육체의 연약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63] 이 견해는 "홀연히

(BZNW 21 [1954]), 110-29는 "갈라디아서 6:17에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한 것은 고난의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X(ριστός)라는 사인을 찍은 육체적인 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125). 그는 계속해서 "내 생각에 십자가를 표하는 תּוֹ(Tav)나 X(Chi)는 이미 초대 기독교 시기의 세례와 관련이 있었고 종말론적인 인침의 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126).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Weima,'Gal 6:11-18,' 97-98도 보라.

59) Block, *The Book of Ezekiel,* 307은 "타우(תּוֹ)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이다. 고대의 필기체 서체에서 타우는 X나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형태는 알파벳이 진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방형 아람어 글씨체가 도입될 때까지 본질적으로 변화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서양의 글씨체 중에서 T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한다.

60) Betz, 'στίγμα,' 7:662.

61) Betz, 'στίγμα,' 7:663; Martin, ' στίγμα,' 2:572-73.

62)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는 또한 딩클러의 주장은 갈라디아서 6:17에서 왜 복수형태인 τὰ στίγματα가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63) E. Hirsch, 'Zwei Fragen zu Gal. 6,' ZNW 29 (1930), 192-97는 "만약 원한다면 과거의 기록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에]" 바울이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추측에 근거한다. 갈라디아서 4:13-15에서 바울은 그의 연약함 또는 어쩌면 질병에 대해서 언급한다.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갈 4:15b)고 말한다.[64]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맺음말을 그렇게 큰 글자로 쓴(갈 6:11) 이유가 그의 안질(eye trouble)의 문제 때문으로 여기기도 한다.[65] 바울이 안질의 문제나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τὰ στίγματα가 바울의 연약함이나 안질을 지칭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66]

을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바울은 행 9:8에서 그에게 나타난 빛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질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전설처럼 여겼던 그 메시지는 돌연 바울 자신의 증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196). 히르쉬는 계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바울에 대한 참 기사인 행 26:13, 14에 비추어 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일행들이 그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보다 불확정적 보편적 사실인 바울의 회심이 그에게 미친 육체적 쇠약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구적인 육체적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196-97).

64) 갈라디아서 4:15b의 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과 함께 오닐은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한다(J. C. O'Neill, *The Recovery of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London: SPCK, 1972], 60-61; Betz, Galatians, 228; Dunn, *Galatians,* 234-36).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과 함께 펑은 그것이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Fung, *Galatians,* 199; Burton, *Galatians,* 241-44; Bruce, *Galatians,* 209-11; Longenecker, *Galatians,* 193; Martyn, *Galatians,* 421).

65) 블라이 외에 여러 학자들은 바울이 큰 글자로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시력의 문제라고 제안한다(Bligh, *Galatians,* 490, W.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9), 242; W. Barclay,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6], 55; B. Witherington, *Grace in Galatia* (Edinburgh: T & T Clark, 1998), 441; G. D. Fee, *Galatians, Pentecostal Commentary* (Dorset: Deo Publishing, 2007), 248을 보라. 비고, G. W. Hansen, *Galatian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197; L. Morris, *Galatians: Paul's Charter of Christian Freedo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6], 186).

그리고 결론 구절인 갈라디아서 6:17절에도 그의 연약함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무엇보다도, 만약 6:17a의 설명 부분인 6:17b를 6:17a(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명하는 부분)와 관련지어서 이해한다면, 히르쉬의 견해는 그 본문의 문맥과 잘 맞지 않는듯하다. 따라서 그의 제안 역시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오닐은(O'Neill)은 τὰ στίγματα를 바울의 순교와 연결시킨다. "바울은 곧 순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닐은 계속해서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따르도록 유혹받았던 그 위험한 길로 더 나아간다는 소식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67] 바울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자신의 순교에 대해 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선행하는 갈라디아서 6:17a(Τοῦ λοιποῦ κόπους μοι μηδεὶς παρεχέτω)의 문맥과 잘 맞지 않는 듯 하다. 바울은 여기서 명령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바울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서 본인 스스로의 행동인 순교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68] 갈라디아서 6:17b에 있는 현재 시재의 동사인 βαστάζω 역시 바울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바울은 τὰ στίγματα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 게다가, 오닐의 견해는

---

66) Bruce, *Galatians,* 276;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포베는 안질의 문제는 복수형으로 된 τὰ στίγματα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67) J. C. O'Neill, *The Recovery of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London: SPCK, 1972), 82-83.

68) 왈레스는 "명령형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금하기 위해서 쓰인다..... μή(또는 이와 같은 어원의 단어)는 명령형 앞에 쓰여서 그 명령이 금지가 되도록 한다.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말한다(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87을 보라).

복수형으로 된 τὰ στίγματα를 설명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견해 역시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τὰ στίγματα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은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중에 받았던 핍박 때문에 그의 몸에 남겨진 흉터나 육체적인 상처를 의미한다.69)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내 몸에[또는 몸 안에]'(ἐν τῷ σώματί μου)라는 표현이 τὰ στίγματα라는 표현 바로 후에 이어져 나오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상처임을 보여준다.70) 둘째, τὰ στίγματα가 핍박으로 인한 육체적인

69) Lightfoot, *Galatians,* 225; W. F. Adeney (ed.), *Thessalonians and Galatians: Introduction, Authorized Version, Revised Version with Notes, Index and Map* (Edinburgh: T. C. & E. C. Jack, 1902), 339; Moulton, 'The Marks of Jesus,' 283; Burton, *Galatians,* 360; Bruce, *Galatians,* 276; Cousar, *Galatians,* 151;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Fung, *Galatians,* 313; A. B. Du Toit, 'Alienation and Re-Identification as Pragmatic Strategies in *Galatians,' Neot* 26 (1992), 294; Longenecker, *Galatians,* 300; Dunn, *Galatians,* 347; B. S. Davis, 'The Meaning of ΠΡΟΕΓΡΑΠΑ in the Context of Galatians 3.1,' NTS 45 (1999),' 208-09.

70) Adeney, *Thessalonians and Galatians,* 339; C. J. Ellicott, *A Critical and Grammatical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with a Revised Translation* (Boston: Crosby, Nichols, Lee & Co, 1860), 155; H. A. W. Meyer,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to the Epistles to the Galatians* (trans. Venables, G. H.; Edinburgh: T & T Clark, 1873), 353; A. Hovey, *An America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0), 78; G. S. Dunca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48), 194; Burton, *Galatians,* 360;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and Philippian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1), 322; R. A. Cole, *Galatians* (2nd ed.;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65, repr. 2008), 240; D. Guthrie, *Galatians* (London: Nelson, 1969), 163; Hendriksen, *Galatians,* 248; H. D. McDonald, *Freedom in Faith: A Commentary on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73), 156-57; Betz, *Galatians,* 325; Bruce, *Galatians,* 276;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Longenecker, *Galatians,* 300; Morris, *Galatians,* 191; Martyn, *Galatians,* 568; Witherington, *Grace in Galatia,* 454; D. Thomas, *Galati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4), 164; S. Jones, *Crossway Bible Guides: Discovering Galatians*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07), 137; J. K. Hardin, *Galatians and the Imperial Cult: A Critical*

상처라는 생각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와도 연결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롬 8:17; 고후 1:5; 4:8-10; 빌 3:10; 골 1:24)."[71] 셋째, 병행구절과 단어들 역시 τὰ στίγματα가 핍박으로 인한 육체적 상처임을 보여준다. 갈라디아서 6:17의 병행구절인 고린도후서 4:10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했다. 이는 바울이 핍박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이후에 나온 표현이다(고후 4:9).[72] 갈라디아서 6:17b에 쓰인 동사 βαστάζω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이 단어가 십자가 지는 것을 암시한다고 제안한다.[73]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6:2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타인의 짐을 지라고 가르칠 때 βαστάζω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딘(Hardin)은 이는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의심의 여지없이 맞닥뜨려야 했던 고난(갈 3:4)에 대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74]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은 할례와 대조된다. 갈라디아서의 대적자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고(갈 6:12b) 할례 받은 자들의 육체를 자랑한다(갈 6:13b). 이와는 반대로, τὰ στίγματα는 예수를 위해

Analysis of the First-Century Social Context of Paul's Letter (Tübingen: Mohr Siebeck, 2008), 98; Schreiner, *Galatians,* 384. 학자들은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로 쳐서 맞은 것을 지적한다(행 14:6-21).

71) Dunn, *Galatians,* 347; Fung, *Galatians,* 314. Cf. P. Siber, *Mit Christus Leben,* ATANT 6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1), 110-16. Betz, *Galatians,* 324-25는 μιμητής ('본받는 자'; 'imitator')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쓰이지 않았지만(비교. 고전 4:16; 11:1; 엡 5:1; 빌 3:17; 살전 1:6; 2:14),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 대해 넌지시 언급을 한다(갈 2:19; 4:13; 5:24; 6:14)고 주장한다.

72) Guthrie, *Galatians,* 163. 이 병행구절에 대해서, 거쓰리는 바울이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쓴 것이 명백해 보이고, 따라서 τὰ στίγματ는 박해로 인한 육체적 상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73) Betz, *Galatians,* 325. D.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or Founder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5), 365은 십자가를 지는 것(요 19:17; 14:27)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지는 것'(사 53:4)을 나타낼 때 사용된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74) Hardin, *Galatians and the Imperial Cult,* 98, n. 61.

받은 핍박의 결과이다.75)

갈라디아서 6:12-13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십자가를 위해 핍박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76) 바울은 갈라디아서 6:17b를 이러한 의미로 쓴 듯하다. 갈라디아서 6:17b의 근본적인 동기는'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핍박을 받는'주제와 관련이 있다.77) 게다가 τὰ στίγματα가 τοῦ Ἰησοῦ에 의해 한정된다는 사실은 바울이 역사적인 예수와 실제로 일어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츠는 τοῦ Ἰησοῦ라는 표현이 τὰ στίγματα의 개념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츠는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78) 보다 구체적으로, 위켄하우저(A. Wikenhauser)는 τὰ στίγματα가 육체적인 상처라는 개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τοῦ Ἰησοῦ를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79) 물론 바울이 세례 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

75) R. A. Cole, *Galatians* (2nd ed.;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65, repr. 2008), 186은 "돌팔매질과 태장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인내한 고난의 흔적을 분명히 남겼을 것이고 그 고난의 흔적은 그것을 지닌 자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표했다"라고 말한다. Burton, *Galatians,* 361; Bruce, *Galatians,* 276;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Fung, *Galatians,* 314도 보라.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다: "예수의 종"(Burton), "그리스도의 사도"(Pobee), 그리고 "교회를 참 할례당과 새 이스라엘로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표"(Fung).

76) Weima, 'Gal 6:11-18,' 99는 설득력 있고 더 구체적으로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라는 표현은 주로(chiefly) "바울이 기꺼이 경험한 핍박과 '표가 없는'(mark-less) 바울의 대적자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핍박"을 대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77) Cousar, *Galatians,* 149

78) Betz, *Galatians,* 324.

79) A. Wikenhauser, *Pauline Mysticism: Christ in the Mystical Teaching of St. Paul* (Freiburg: Herder, 1960), 154-55.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B. M. Ahern,'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Phil 3:10): A Study of St. Paul's Doctrine on Christian

살아난 것은 사실이다(갈 3:27). 하지만 포베(Pobe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런 신비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에는 예수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Christ)나 주(Lord)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롬 6:3-4, 8-11; 갈 4:19; 5:24; 골 2:11-12).[80] 바울이 예수의 개인적인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직 갈라디아서 6:17에서만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81] 이는 갈라디아서 6:17에서의 사용이 의도적임을 보여준다. 만약 바울이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이름을 사용했다면, 갈라디아서 6:17에서 바울은 "인간 예수의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82] 따라서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라는 표현은 예수가 경험한 그 고난을 암시하는 것이다.[83] 포베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τοῦ Ἰησοῦ를 사용하여 예수의 고난을 "기독교인들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protomartyr)"로 환기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84] 만약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

Suffering,'CBQ 22 (1960), 18, n. 62도 보라.

80)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Dunn, *Galatians,* 347은 "인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암시는 아무런 직함(주 또는 그리스도) 없이 흔치 않게 예수의 개인적인 이름만 사용된 것에 의해 고조된다. 비교. 특히 고후 4:10-12, 롬 8:11에 나타난 초기 부활 공식의 반복, 그리고 살전 1:10, 4:14"고 말한다.

81)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들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의 개인적인 이름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갈 6:17이 예수의 개인적인 이름만 사용된 유일한 경우이다(비교. 갈 1:1; 3:14; 5:24; 6:14; 6:18).

82) Dunn, *Galatians,* 347. Harris, *Slave of Christ,* 87은 '주'(Lord)는 예수의 신성을, '그리스도'(Christ)는 예수의 메시아 됨을, 그리고 '예수'(Jesus)는 그의 인간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말한다.

83) C. Wolff,'Humility and Self-Denial in Jesus'Life and Message and in the Apostolic Existence of Paul' in Paul and Jesus (ed. A. J. M. Wedderburn; Sheffield: JSOT Press, 1989), 156는 예수(Ἰησοῦς)라는 이름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박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가해진 처벌로 인해 그에게 야기된 상처와 흔적으로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 속함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S. Kim,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Second Thoughts on The Origin of Paul'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02), 228, 281;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364, n. 78도 보라.

84)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형으로부터 비롯된 매 맞고 못 박힌 흔적을 암시할 것이다.[85] 바울이 ἐν τῷ σώματί μου라는 표현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흔적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당한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생긴 상흔 또는 육체적 상처를 나타낼 것이다.[86]

비록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가 일차적으로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적인 상처를 의미하지만, 이 표현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에 바울 자신은 예수를 본받는 자(imitator)이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 고난 받는 자로 이해했다면, τὰ στίγματα의 의미가 육체적인 의미로서의 고난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라 영적인 것과 정신적 고통까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87]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행인들은 그를 조롱하였다(ἐβλασφήμουν; 마 27:39; 막 15:29).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 하였다(ἐμπαίζοντες; 마 27:41; 막 15:31). 심지어 십자가 위의 강도들까지도 예수를 욕하였다(ὠνείδιζον; 마 27:44; 막 15:32). 게다가,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ἐγκατέλιπες; 마 27:46; 막 15:34).[88] 이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예수의 고난을 총체적으로(holistically)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89] 따라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인 일차적으로 그의 육체적

---

85)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364; Wolff,'Humility and Self-Denial,' 156.

86) Cole, *Galatians,* 186; Guthrie, *Galatians,* 162; Betz, *Galatians,* 325; Pobee, *Persecution and Martyrdom,* 95; Longenecker, *Galatians,* 300.

87)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됨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88) 베드로 역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벧전 2:23)라고 말한다.

89)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365. 예수의 고난에 관해서, 웬함은 바울이 단순히 예수의 육체적인 고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모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옳게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바울이 고전 4:12에서 말한 것("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은 예수의 고난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상처를 지칭하지만, 더 나아가 그 흔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형태의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만약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종류의 고난을 지칭한다면, 이러한 고난이 바울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바울은 자신이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를 지니고 있다고 묘사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은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바울이 βαστάζω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짊어지다"(to carry) 또는 "운반해 가다"(to bear away)이다.[90] 이 단어(βαστάζω)는 다양한 목적어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뜻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다.[91] 이 단어가 여기서는 핍박으로 인한 상처를 의미하는 "예수의 흔적"과 함께 쓰였고 따라서 바울은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고 있다. 주목해 볼 것은 예수가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허물을 지고 가는 것을 묘사 하거나(요 19:17; 마 8:17),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눅 14:27), βαστάζω가 사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92]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βαστάζω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93] 갈라디아서 6:17절의 τὰ στίγματα가 바울이 예수를 위해 인내했던 모든 핍박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웬함(D. Wenha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90) W. Stenger, 'βαστάζω,' EDNT, 1:208-9; F. Büchsel, 'βαστάζω,' TDNT, 1:596.

91) Stenger, 'βαστάζω,' 1:208-09.

92) Stenger, 'βαστάζω,' 1:208-09.

93) Betz, *Galatians,* 325. 눅 14:27과 요 19:17에서 βαστάζω와 σταυρός라는 용어가 함께 쓰인 것에 주목하면서, 베츠는 "[갈 6:17b의] βαστάζω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Schreiner, *Galatians,* 383는 "'지니다'(βαστάζω)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증한다"고 더 강하게 주장한다.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364-65, n. 79는 "그 동사는… 사 53:4에서 고난의 종이 타인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 "그[바울]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의 십자가 처형 때 받았던 육체적 상처들 (매맞음과 못 박힘 등)을 암시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와 비슷하게 상처를 입었음을 말할 것이다. 그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 2:!9; 6:14) 그의 몸에는 예수의 몸이 지녔던 그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94]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고후 1:5; 빌 3:10; 골 1:24)으로 이해했기 때문에[95] 갈라디아서 6:17b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사용했던 단어인 '본받는 자'(μιμητής; imitator)라는 용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96] 하지만 바울은 암시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해 묘사한다(갈 2:19f; 4:13f; 5:24; 6:14).[97] 이러한 이유로,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를 본받는다는 의미일 것이다.[98]

위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ἐν τῷ σώματί μου βαστάζω라는 문장은 바울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가 얼마나

---

94)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364-65 또한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충성심을 입증한다고 말한다(365). Martyn, Galatians, 568; Witherington *Grace in Galatia,* 454도 보라.

95) 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364를 보라.

96) 고전 4:16; 11:1; 빌립보서 3:17; 살전 1:6; 2:14. 비교. 엡 5:1.

97) Betz, *Galatians,* 325를 보라.

98) 현재 직설법으로 된 동사 βαστάζω는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함을 시사한다. D. Mitternacht, 'A Structure of Persuasion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Appeal in an Aural Setting,' *ATS* 9 (2007), 87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Paul's *imitatio Christi Crucifixi*)으로 묘사한다.

혹독하게 취급을 받았는지 보여준다. 사람들은 예수를 문제가 많은 노예로 취급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예수에게 굴욕과 모욕을 주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자신의 수난 당함을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노예들이 낙인찍히듯이 사람들에 의해서 낙인찍히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비교. 고전 1:23).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7-8에서 바울이 예수를 노예로 묘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비교. 행 3:13, 26).[99]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μορφὴν δούλου λαβών)[100]… [그리고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101] 바울은 예수를 겸손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제시하는데,[102] 이는 모든

99) 비교. 롬 15:8-9a("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엄격히 말해서 바울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종이 되는 것과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마 18:14; 20:20-28; 23:12; 막 9:35; 10:35-45; 눅 22:24-27; 14:11; 18:14; 요 13:1-11)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겸손과 섬김의 주제'가 바울 서신들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지적하면서(롬 12:10, 16; 15:1-4; 고전 9:19, 22; 10:33-11:1; 고후 4:5; 11:7; 갈 5:13c; 빌 2:2-9), 웬함은"바울의 가르침이 예수 전승(Jesus-traditions)과 비슷한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Wenham, *Paul: Follower of Jesus,* 266-71, 특히 268).

100) 예수가"종의 형체(또는 성격)"(μορφὴν δούλου)를 취한 것이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여러 학자들과 함께 피(Fee)는 이 표현에서 바울의 강조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한 것이 종의 성격을 가진다는 데 있다. 그가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올 때 주('Lord') 곧 그의 신원이 회복될 때 얻게 될 이름(9-11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slave') 곧 아무런 이득이나 권리나 특권도 없는 사람인 모든 자의 종으로 왔다"고 말한다(Fee, *Philippians,* 211-13, 특히 12-13). Michael, *Philippians,* 91은"종(servant)으로 번역된 단어는 보편적으로 노예(slave)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Bruce, *Philippians,* 69-70; Hawthorne, *Philippians,* 118도 보라. 비교. C. F. D. Moule, 'Further Reflections on Philippians 2:5-11' in *Apostolic History and the Gospel: Biblical and Historical Essays Presented to F. F. Bruce* (eds. W. W. Gasque and R. P. Martin;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70), 268.

101) 빌 2:7의 "자기를 비워" (ἑαυτὸν ἐκένωσεν)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기 위해서는 R. P. Martin, *A Hymn of Christ: Philippians 2:5-11 in Recent Interpretation & in the*

빌립보인들이 예수가 가진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에서 볼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 2: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Τοῦτο φρονεῖτε ἐν ὑμῖν ὃ καὶ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라고 했다.[103]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궁극적인 겸손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빌 2:8).[104] 이 구절에 관해서 피(G. D. Fee)는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자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고전 2:8)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순종'의 행위로 보는 자의 관점에서 이해했다"고 옳게 지적한다.[105] 예수의 모범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그 서신의 수신자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명령형 동사인 φρονεῖτε ('프로네이테,' '염두에 두다')를 사용하여 그 수신자들에게 예수처럼 되라고 명령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재촉한다는 의미에서 이 명령은 예수를 닮으라는 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06]

Setting of Early Christian Worship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7), 165-196; O'Brien, *Philippians,* 268-71; Hawthorne, *Philippians,* 116-17; G. W. Hansen,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9), 146-53을 보라. 오브라이언은 동사 κενόω ('비우다')는 "겸손의 뉘앙스를 전달한다"고 말한다(269).

102) O'Brien, *Philippians,* 45, 227. 비록 '종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영예스러운 면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겸손의 뉘앙스 뿐 아니라 헌신과 복종의 뉘앙스도 항상 나타난다고 말한 무(Moo)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Moo, *Romans,* 41을 보라).

103) 바울은 μιμητής와 그에 상응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자들로 하여금'하나님'(엡 5:1)과 '주'(살전 1:6)와 '하나님의 교회'(살전 2:14)와 '그 자신'(고전 4:16; 11:1; 빌 3:17; 살전 1:6; 비교. 살후 3:7, 9)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한다.

104) D. F. Fee, 'Philippians 2:5-11: Hymn or Exalted Pauline Prose?,' *BBR* 2 (1992), 44; Hansen, *Philippians,* 155를 보라.

105) Fee, *Philippians,* 216.

106) 바울은 종종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고전 11:1; 고전 4:16; 빌 3:17을 보라; 비교. 엡 5:1; 살전 1:6; 2:14). 비록 바울이 빌립보서 2:1-18에서 '본받는'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뿐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미 빌립보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의 겸손함의 본

빌립보서 2:1-8이 바로 앞선 구절들(빌 1:29-30)과 접속사 οὖν(빌 2:1)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결은 빌립보서 1:29-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의 한 단면임을 보여준다.[107]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예수의 마음 곧 겸손히 노예의 역할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까지도"(빌 1:29; NLT) 주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2: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인들은 남을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바울은 예수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당했고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이해는 그가 사용한 표현인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υ에도 잘 나타난다. 바울이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ἐν τῷ σώματί μου βαστάζω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본받으면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빌 2:17; 2:19-30). 바울이 빌 3:17에서 '본받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가 '본받음'이라는 개념을 마음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107) 이 연결은 타인을 종이 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빌 2:1-18에서 바울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고 요구한다(빌 1:29). M. J. Gorman,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Grand Rapids: Eerdmans, 2001), 221은 "종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종 되심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경험한 바울의 종의 모티브 간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예, 빌 2:6-8). 더 나아가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섬기던 자들의 종으로 여겼다(예, 고후 4:5,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 따라서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고 말한다.

4. 나가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στίγμα라는 용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경우 한 노예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주인을 밝히기도 하고, 한 종족의 맴버십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헌신자들에게 신성한 표로 주어져서 그들을 보호하는 표(protective mark)로 여겨지기도 했다. Στίγμα라는 용어가 죄인들이나 잘못을 행한 노예들, 혹은 군 탈영병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문신이나 낙인찍는 것이 금지되어 실재로 행하지는 않았지만(무덤에 십자가 표를 하기는 함), 바벨론 포로시기 이후 이교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στίγμα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익숙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στίγμα가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한 자들에게 신비적으로 주어졌던 몸의 상처나 상흔으로서 성흔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바울이 말하는 τὰ στίγματα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핍박의 육체적 흔적이라면, 이는 어쩌면 문제를 일으켰던 노예에게 στίγματα가 처벌로 주어진 경우와 가장 잘 부합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흔적을 갖게 되는 과정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를 일으켰던 노예가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마침내 στίγματα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처럼, 예수도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문제가 많은 노예 취급을 당하고, 마침내 그 고난의 흔적인 στίγματα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υ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예수를 위해 받는 육체적인 고난의 흔적을 말하지만, 더 넓게는 예수를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υ를 자신의 몸에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많은 노예로 취급당하고 십자가에서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했듯이 자신도 예수를 위해 온갖 핍박과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본받고 있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다.[108]

108) 글을 시작하면서 갈 6:17에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τὰ στίχματατοῦ Ἰησου가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이유로 제시한다고 했다. 바울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온갖 굴욕을 당하는 표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음을 증거 하는 이유와 이 증거가"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듯하다.